

양림동부터 운주사까지

지역사 기록한 세 가지 시선

향토사 연구자 김정호

구순 맞아 저서 3권 펴내

선교 역사·불교문화·

전통 여성관 담은 연구 성과



구순(九旬)을 맞은 향토사학자 김정호(사진)씨가 지역 역사와 전통문화, 종교, 여성관 등을 주제로 한 저서 세 권을 한꺼번에 펴내며 왕성한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향토사 연구자인 김씨는 최근 '양림동 선교와 토착화', '운주사', '분별을 중히 여긴 한국 여성' (이상 심미안씨)을 출간했다.

세 권의 책은 광주 양림동의 근현대사와 기독교 선교 역사, 화순 운주사의 불교문화 해석, 한국 전통사회 속 여성관을 다룬다. 오랜 시간 지역 현장을 기록해온 저자의 문제의식과 비판적 시각이 담겼다.

'양림동 선교와 토착화'는 광주 남구 양림동의 역사와 미국 장로교 선교 활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지역 문화의 변화를 추적한 책이다. 김씨는 양림동을 단순한 선교 유적지가 아닌 전통문화와 서양 종교가 교차한 공간으로 바라본다.

책은 양림동 지명의 유래와 사적단, 근대기 광주 사회를 이끈 인물들부터 미국 장로교 선교의 한국 진출 과정, 의료·교육·복음 선교 활동 등을 폭넓게 다룬다.

특히 호남 지역의 역사적 경험과 지역 정서가 기독교 수용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며, 서양 종교의 토착화 과정 또한 함께 짚는다.

김씨는 양림동 선교가 민주주의 의식과 서



양 예술 전파에 기여한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전통문화예술을 위축시킨 부분 역시 함께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오늘날 양림동에 남아 있는 선교 유산과 미술관, 복지시설, 기념관 등을 통해 근대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의 풍경도 정리했다.

'운주사'는 오랜 시간 미스터리로 남아 있

는 화순 운주사를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한 저서이다.

김씨는 운주사를 천태종계 사찰로 규정하고, 운주골의 불상과 석탑들을 '법화경'의 세계를 구현한 '영산법회'의 현장으로 해석한다. 특히 운주사의 불탑들을 '석가모니가 영축산에서 행한 영산법회의 아단법석을 가장

잘 반영한 시설'이라고 설명하며, 탑과 불상 배치의 상징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책에는 운주사의 풍수적 해석과 도선국사 창사설에 대한 검토도 담겼다. 저자는 운주골 지형을 거대한 법선 형국으로 바라보며, 천태산·개천산·삼계봉 등 주변 지명과 불교 상징 체계의 연관성도 함께 풀어낸다.

또 운주사가 도선국사 비보설과 결합하며 민간 설화와 상상력이 축적된 공간이 됐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저자는 수많은 기록과 설화, 문학 작품 속 운주사를 향토사적 관점에서 다시 검토하며, 세계문화유산 등재 논의 속에서도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지닌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분별을 중히 여긴 한국 여성'은 서구 페미니즘 담론과 대비해 한국 전통사회의 여성관을 조명하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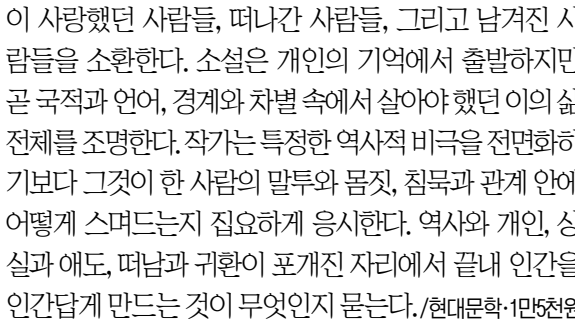
김씨는 서양 여성운동과 한국 사회의 역사적 문화 토대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며, 한국 여성은 역사적으로 남성과 '차등' 관계가 아니라 '분별(分別)' 관계 속에서 역할을 나눠왔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책에서는 한국 전통사회 속 재산 상속, 성씨 유지, 제사 문화, 가정 내 역할 등을 사례로 들며 서양 사회와의 차이를 설명한다. 또 조선시대와 그 이전 사회의 여성 권한, 부부유별 개념 등을 통해 한국 사회 특유의 가족문화와 여성관을 해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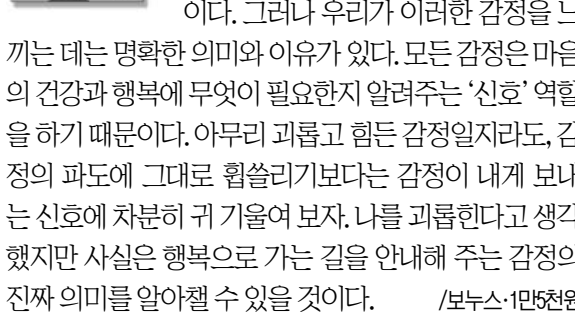
1937년 진도에서 태어난 저자는 무등일보 편집국장, 전남도농업박물관장, 향토문화진흥원장, 광주시·전남도 문화재위원 등을 역임했다. 광주시 시민대상과 화관문화훈장 등을 받았으며 '광주산책', '한국의 귀화성씨', '영호남의 인문지리' 등 50여 권의 저서를 남겼다. /최명진 기자

새로운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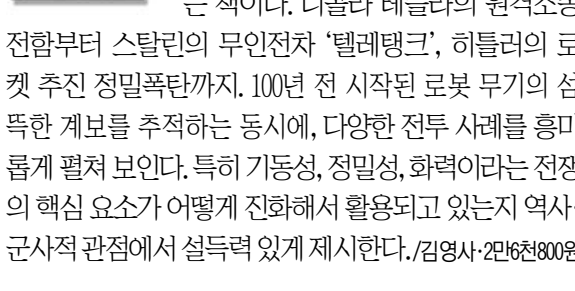
▲우리 세희=조혜진 저자
전쟁과 내전을 주제로 전시한 예술가 제이비 류를 취재하러 런던에 간 화자가 자신과 선생, 그리고 제주 출신의 조부를 둔 제이비 류의 가족사를 반추하는 이야기다. 화자인 연주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 떠난 사람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을 소환한다. 소설은 개인의 기억에서 출발하지만 곧 국적과 언어, 경계와 차별 속에서 살아야 했던 이의 삶 전체를 조명한다. 작가는 특정한 역사적 비극을 전면화하기보다 그것이 한 사람의 말투와 몸짓, 침묵과 관계 안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집요하게 응시한다. 역사와 개인, 사실과 애도, 떠남과 귀환이 포개진 자리에서 끝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현대문학·1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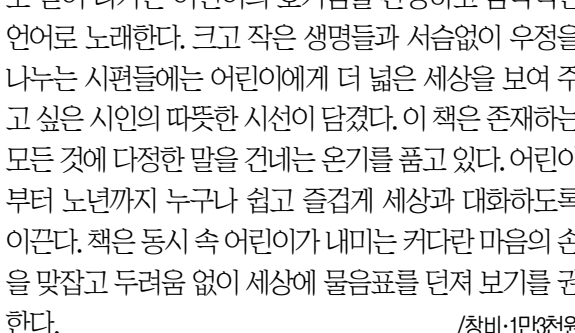
▲내 감정인데 왜 휘둘릴까?=이재복·양나은 저자
무기력, 우울, 불안, 열등감, 분노, 공허감 같은 감정들은 느껴지는 즉시 마음속에서 쫓아내고 싶은 부정적 감정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데는 명확한 의미와 이유가 있다. 모든 감정은 마음의 건강과 행복에 무엇이 필요인지 알려주는 '신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괴롭고 힘든 감정일지라도, 감정의 파도에 그대로 휩쓸리기보다는 감정이 내게 보내는 신호에 차분히 귀 기울여보자.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감정의 진짜 의미를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보너스·1만5천원



▲시 시대, 전쟁의 미래=조지 M. 도허티 지음, 유강음 옮김
군사기술 논픽션 작가이자 미 공군의 과학기술 전략 수립을 설계했던 주역인 저자의 전문성과 통찰이 돋보이는 책이다. 니콜라 테슬라의 원격조종 전함부터 스탈린의 무인전차 '텔레탱크', 히틀러의 로켓 추진 정밀폭탄까지, 100년 전 시작된 로봇 무기의 섬뜩한 계보를 추적하는 동시에, 다양한 전투 사례를 흥미롭게 펼쳐 보인다. 특히 기동성, 정밀성, 화력이라는 전쟁의 핵심 요소가 어떻게 진화해서 활용되고 있는지 역사·군사적 관점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김영사·2만6천800원



▲물음표는 낯빛바늘=윤재림 글, 장고덕 그림
이번 동시집에서 시인은 어린이가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던지는 '물음표'를 '낯빛바늘'에 비유하며 사방팔방으로 뻗어 나가는 어린이의 호기심을 간명하고 감각적인 언어로 노래한다. 크고 작은 생명들과 서슴없이 우정을 나누는 시편들에는 어린이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시인의 따뜻한 시선이 담겼다. 이 책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다정한 말을 건네는 온기를 품고 있다.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누구나 쉽고 즐겁게 세상과 대화하도록 이끈다. 책은 동시 속 어린이가 내마는 커다란 마음의 손을 맞잡고 두려움 없이 세상에 물음표를 던져 보기를 권한다. /창비·1만3천원



자연 속 희망찬 동심의 세계를 노래하다

강성남시인 동시집 '도리도리도토리' 출간

담양문화원장을 맡고 있는 강성남 시인이 맑은 동심과 자연의 소중함을 담은 동시집 '도리도리도토리'를 펴냈다. 아이들 눈높이에서 자연과 우정, 희망의 의미를 풀어낸 이번 시집은 소박한 언어 속 따뜻한 울림을 전한다.

시집은 초록의 자연과 어우러지며 꿈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아이들의 밝고 고운 마음을 시적 언어로 형상화했다. 자연과 친구, 일상의 풍경을 담담하게 풀어내면서도 세상을 향

한 다정한 시선을 잃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그는 '친구와 행복을 나누고 우정을 쌓는 과정이 곧 희망의 꽃이 된다'는 메시지를 책 전반에 녹여냈다.

"세상이 돌아 돌아간다/쓰러질 듯 쓰러질 듯//살얼음판에서/돈다 돈다. 빙빙 빙//얽히고설켜 세상/회초리 끝에서 빙글빙글//맞고 맞고 돌다가/돌고 돌고 맞다가/무지개로 뜨겠네" 수록작인 '빙빙 돈다 팽이'는 복잡하게 얽힌 세상 속에서도 결국 조화와 희망을 이뤄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도리도리 도토리/어디서 사나요/물 맑고 공기 좋은/깊고 깊은 산중에 살지요//도리도리 도토리/누구랑 지내나요/낮에는 해님/밤에는 달님 도리도리 지내지요//도리도리 도토리/어떻게 왔나요/다람쥐 모르چه/바람 따라 슬금 슬금 왔지요" 또다른 수록작 '도도

도리도토리'에서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풍경을 정겹게 그려내며, 맑은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고자 하는 바람을 녹여냈다.

김목 동화작가는 이 시집에 대해 "'작음'에서 '큼'으로 나아가는 성장하는 세상이 담겨 있어 현재의 나부터 미래의 나까지 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평했다.

한편 강성남 시인은 2003년 등단 이후 송순문학상, 한국아동문학 작가상, 전남문화상 등을 수상하며 시, 시조, 수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력을 인정받아 왔다. 담양문화원장으로서 지역 문화 진흥에 헌신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동시집 '하얀미소', 동요집 '새싹', 시집 '담양가네 담양사세' 등이 있다. /담양=정승균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수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할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